

추신수, 올스타전 출전 한국인 야수 최초

추신수(36, 텍사스)가 올스타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8일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커리어 첫 올스타전에 출전한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올스타 팬투표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선수단 투표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빅리그 데뷔 14시즌 만이며 한국인 야수로서는 첫 올스타 선정이다. 과거 박찬호(2001), 김병현(2002)이 올스타전에 출전했지만 이들은 모두 투수였다.

추신수는 올스타전 출전과 함께 홈런 터닝 출전도 제안 받았다. 텍사스 지역지 '달러스모닝뉴스'는 9일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홈런 터닝 출전을 권유 받았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통산 185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10년·2015년·2017년에 기록한 22개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6경기에 나서 17개를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공동 24위에 올라있다. 텍사스의 잔여 경기를 감안하면(9일 현재 70경기) 추신수는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기록 경신은 물론 MLB 진출 후 처음으로 30홈런 고지를 밟을 가능성도 크다.

달러스모닝뉴스는 "추신수는 한국인 타자 중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신수가 홈런 터닝에 참가한다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것이 메이저리그가 추신수에게 홈런 터닝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은 오는 17일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인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다. 홈런 터닝은 하루 전인 16일 열린다.

우즈-미켈슨 1000만 달러 놓고 단판 승부 벌일까?

골프 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벤트 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3)와 '쇼트게임의 마법사' 필 미켈슨(48)의 1대1 맞짱 경기다. 둘은 과거 압도적 1인자와 그 1인자를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쓴 2인자로 서로 호의적일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엔 연습라운드(마스터스)를 같이 하고 사업 논의도 하는 등 '브로맨스' 급 친밀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추진되자 골프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11일 '한국경제'가 미국 매체 '골프워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우즈와 미켈슨 측은 상호 합의에 이같은 이벤트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미 이달 초 TV중계를 하기로 하고 라스베이거스의 한 골프장까지 잡았지만 최종 스케줄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경기 방식이 흥미를 끈다. 단 둘이 코스에 나가 18홀을 도는 '샷아웃' 형태다. 초청료는 없고 상금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winner-takes-all)'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상금도 무려 1,000만 달러이다. 지난해 우즈가 벌어들인 수입(4,330만 달러)의 4분의 1 정도를 하루 라운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여서 '1,000만 달러의 도박'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켈슨도 지난해 4,13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상금액이 워낙 커 상금 확보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돈을 내고 중계방송을 보는 '페이TV' 형태로 돈을 모아 지급하거나, 대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우즈



와 미켈슨이 일종의 이벤트 회사를 차려 직접 이 경기를 주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둘 다 노회한 사업가들이란 점을 감안할 때 브로커를 끼지 않고 직접 경기를 기획하고 진행해 TV중계권료 등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이런 류의 빅매치를 정례화, 시리즈화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 이 매치를 기획한 TV프로덕션 측은 둘이 마이크폰을 끼고 경기를 하게 해 경기 도중 나올 수 있는 생생한 '덕담'과 '저주의 말'을 모두 중계하자는 아이디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와 미켈슨은 각각 PGA 투어 78승(메이저 14승)과 43승(메이저 5승)을 올린 '거장'들이다. 뛰어난 기량과 훌륭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우즈의 그늘에 가려 오랜 세월을 2인자에 만족해야 했던 미켈슨의 입장에서선 우즈는 '넘사벽'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다. '양숙', '영원한 라이벌'로 둘을 부르는 팬들이 많고, 둘의 맞대결을 늘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렌지카운티

장스바디종합정비센터

CHANG'S AUTO BODY & REPAIR

40여년의 변하지 않는
- 마음씨 좋은 사람들 -

CHANG'S
AUTO BODY

FRAME
& PAINTING



매니저 Simon An

714.891.1950
1-800-277-2639

Email : changsauto@gmail.com

7601 Garden Grove Bl. G.G CA 92841



정비부

- 컴퓨터 점검수리 ■ 전기일체
- 브레이크 ■ 튜업, 라디에타
- 에어컨디션 ■ All Brand Tire
- 엔진, 카브레타, 트랜스미션

바디부

- 최신 컴퓨터 시스템
- 후레임머신 설치 ■ 무료토잉
- 보험수리 전문취급 ■ 무료견적
- 후레임 Work & Welding

3만, 6만, 9만마일 Service /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